

# 국회 국방위원회, 1992년 국정감사 스케치

**국회** 국방위원회의 199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각군 본부, 합참, 국방부,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변 안보위협 변화와 함께 質위주의 新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전환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치뤄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예산의 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비구입(순찰선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격려의 소리가 높았으며, 예전에 비해 전문적인 질의속에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알려졌다.

防産이나 국방과학기술, 예비군 등 本誌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 日字順으로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黃明秀 의원 (민자당)



걸프전쟁이후 우리 공군의 미래전을 위한 항공기술 전략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지? 우리 공군의 자체 조기경보능력과 대미(對美)의존도 및 對북한 경

보능력의 수준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 공군의 자주적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첨단 조기경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지?

• 기타 질의

- 장병 1인당 부식비 인상
- 병영시설 현대화계획 진척
- 육군 항공학교 이전 문제 등

國防委 국정감사 일정	
10. 15 (木)	공군 본부
10. 16 (金)	육군 본부
10. 20 (火)	해군 본부
10. 21 (水)	합참
10. 22 (木)	국방부
10. 23 (金)	안기부
10. 24 (土)	병무청

\* 林福鎭 의원 (민주당)



역사적으로 북한은 한시적인 적(敵)이지만, 주변국의 위협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대립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민족방

위의 기본전략을 對北억제차원에서 주변국 억제전략 차원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이에 맞춰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다고 보는데?

공군은 독자적인 전략정보 수집능력 확보를 왜 미루고 있는지?, 그리고 확보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또 현재 우리 공군의 F-16으로 북한의 공격에는 대응할수 있다고 思料되나, 장기적으로 주변국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성능상 역부족으로 판단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KFP계획에 對 주변국 전략을 고려하여 대수를 줄이더라도 좀더 우수한 기종을 선정하지 않고 F-16을 선정한 이유는?

• 기타 질의

- 공군 조종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 공군 및 해군력 배양을 위한 中長期계획
- 작통권(作統權) 환수이후 대비책 수립

\* 朴九湓 의원 (민자당)



적정 국방비 확보가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등으로 인해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세계 군비 경쟁추세가 量에서 質로 변화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인력을 절약하고 장비집약

형 전력구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첨단무기 연구개발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국방비는 감소추세이나 연구개발비는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개발비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10~16%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국방비의 8~10% 정도로 확보할 용의는?

한국전투기사업(KFP)의 성공여부는 고도의 제조기술 이전을 관건으로 봅니다. 현재 미국 의회의 디슨 上院의원등이 ▲한·미 무역역조 ▲제3국 수출 ▲기술이전의 부메랑 효과 등 완제기 도입이외에는 不可하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기술이전시 계약이행을 보장받는 보완조치는 완료하였는지?

단계별 사업수행시 대응 준비상태는?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외에도 화학무기를 1천톤 이상 비축하고 있으며, 전후방 동시 戰場化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 국민적 화생방 방어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 羅 柄 扇 의원 (민주당)



現 동원예비군 2백52만 명과 향방예비군 1백61만명등 총 4백30여만명으로 편성돼있는 인력규모를 줄이는 일부터 선행할 용의는? 예비군의 직접 운영비가 연간 국방예산의 1.5%(1천2백85억원)나 차지하는 것외에도 생산 활동시간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경제적 손실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예비군을 4백만명, 연평균 훈련일수 10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 10만원으로 추정할때, 예비군의 훈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조3천억원으로, 국방비 총액의 20%에 해당됩니다.

향방예비군을 폐지하고, 동원예비군의 규모를 축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질의

— 中·長期 군사전략 수립과 함께 차기 무기체계 개발과 연계된 소요 핵심기술을 구체

적으로 분류하여 도입할 기술 및 독자개발할 기술별로 기술획득전략 수립

- KFP사업관련 未보유 핵심기술개발 및 국산화 유인 보상제도 개선·시행
- 防産기술자료 및 정보유통 관리체계의 전산망 활용, 구축
- 적정규모의 방산업체 전문화 및 계열화 추진
- 연구개발비 대폭 확대 및 民·軍 公營 기술개발
- 산·학·연 연계 구체적 사업추진계획
- 기술개발투자 우선순위
- 국방연구개발 증진정책과 국방예산의 한계 보완책
- 업체 자체개발 국산화성공시 보상책

\* 李 弼 燮 합참의장



지난 90년 10월 1일 합동군제에 의한 합참창설에 이어, 금년 3월 10일 명실상부한 군령 최고사령부로서 새롭게 출범하기 까지 성원을 보내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참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당면한 북한의 기습적 군사도발에 완벽히 대비함은 물론, 다양한 안보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自力방위를 전제로한 군사전략과 軍구조, 그리고 전쟁기획 및 용병체계 전만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참은 中·長期적으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억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융통성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발전과 미래지향적 軍구조, 전력배비(戰力配備), 군사력 정비와 함께 균형있는 杼外 군사협력체제 발전과 평화공존 및 통일에 대비한 군사기획의 발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